

104. 조선업 근로자 에서 발생한 제4-5, 5-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

성별 남 **나이** 49세 **직종** 강선건조·수리업 **업무관련성** 높음

1. 개요: 근로자 김OO은 1982년 3월 OO중공업에 입사하여 24년간 용접사로 작업하던 중 2006년 제4-5, 5-6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김OO의 작업 부서인 건조 2부는 대형 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주요 작업은 블록내부용접, 블록외부바닥용접,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파악되었다. 바닥 용접이 50%, 천정 용접이 25%, vertical 용접이 25%를 차지하고 바닥 용접의 경우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50%,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가 25%, 바닥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25% 정도였다고 한다. 순 작업시간은 30-40% 정도였으며 협소한 소블록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전체 작업의 10% 정도라고 한다. 블록내부 용접은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비틀어서 작업을 수행하며 REBA 평가 결과 9점으로 나타났고, 블록외부 바닥용접은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높이 든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REBA 평가 결과는 5점이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10여년전부터 목 부위의 증상이 있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, 7-8년전부터는 목,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. 경추의 통증은 2001년부터 심해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2006년 6월에 실시한 MRI 검사에서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다. 2007년에는 양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을 진단받았으며 목/어깨의 통증과 저림 증상, 양쪽 손가락 지관절 이하 부위 및 손바닥의 저림 증상이 있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김OO은,

- ① 제4-5, 5-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
- ②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질병력이나 외상력이 없었으며,
- ③ 24년간의 용접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조사 결과 블록내부용접, 블록외부바닥용접 등은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경추의 굴절과 과신전, 옆으로 구부리기, 뒤틀기 등의 위험요인이 경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

근로자 김OO의 제4-5, 5-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